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8

▶ 19회 예고
아쇼까는 탁실라에 도착해 부왕인 수시마를 만난다. 수시마를 농락해온 망갈라로이 형제를 처단하겠다고 말한다. 결국 아쇼까는 그들을 붙잡아 극형에 처한다. 그러자 반란의 조짐도 사라지고 탁실라는 안정을 되찾는다.



아쇼까, 아들 꾸날라를 보다

친위대장은 예전에 장수들이 사용하던 초라한 숙소가 아쇼까의 별궁으로 바뀐 것을 보고 놀랐다. 결혼한 왕자들의 별궁은 크고 호화로웠던 것이다. 아쇼까 별궁은 초라하다 못해 동정심이 들 정도였다. 결혼한 왕자들이 거처하는 별궁도 빈두사라의 마음에 따라 정해졌다. 친위대장은 아쇼까 별궁으로 들기 전에 잠시 호흡을 골랐다. 그때 시중드는 궁녀가 나타나 물었다. 처음 보는 나이 든 궁녀였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왕자님을 뵈러 왔네. 대왕님의 명을 가지고 왔네."

궁녀가 '대왕의 명'이란 소리를 듣고는 별궁으로 뛰어가듯 들어갔다. 아쇼까 부인 빠드마바띠가 뒤뚱뒤뚱 불편한 걸음걸이로 나왔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산달이 가까운 듯 배가 불룩했다.

"장군님, 방에서 기다리시지요."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녀는 친위대장과는 구면이었다. 빠드마바띠가 결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날 때였다. 코끼리를 타고 빠딸리뿌뜨라성으로 들어오는 동안 친위대장이 1요자나 떨어진 들판에서부터 군사를 풀어 호위해주었던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왕자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친위대장은 그녀에게 차마 말을 못했다. 충격받으면 유산할 수도 있을 터였다. 잠시 후 아쇼까가 왔을 때도 그녀를 동석시키지 않고 대왕의 명을 전했다.

"왕자님, 놀라지 마십시오. 대왕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탁실라 수시마 부왕님께서 그곳 대신들의 농간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대왕님께 수시마 부왕님을 도울 분은 아쇼까 왕자님뿐이라고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농간을 부리고 있습니까?"

"수시마 부왕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거짓 보고를 하여 성민이나 목동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머잖아 소요가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탁실라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친위대장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방문에 그림자가 스쳤다. 친위대장은 방문을 열어젖히며 두리번거렸다. 아쇼까가 말했다.

"이곳은 나의 별궁이오. 나의 동태를 살필 사람은 아무도 없소. 방금 문에 어린 그림자는 궁녀였을 것이오."

친위대장이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왕자님께서 저를 탓하지 않으시니 다행입니다."

"대왕님의 명을 전달하려고 왔는데 그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소."

"그러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아쇼까가 친위대장의 팔을 잡았다. 아쇼까가 어정쩡하게 의자에 앉은 그에게 말했다.

"탁실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왕자비가 임신 중입니다. 곧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 이름도 꾸날라라고 지어놓았습니다. 꾸날라, 아이가 사내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왕자님이시여, 새의 눈처럼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축복을 해주니 감사합니다. 내일 저는 대왕님을 찾아뵙고 떠나는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친위대장이 나간 뒤 빠드마바띠가 아쇼까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쇼까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화제를 돌렸다.

"부인, 오늘 타고 달린 말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오."

"그 말을 타시면 하루 이틀 사이에 탁실라에 도착하겠군요."

"탁실라라니 무슨 말이오?"

"대장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숨기지 마세요."

아쇼까는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느다란 손이 아쇼까의 큰 손에 힘없이 잡혔다. 허약한 체격에다 병치레를 하여 얼굴은 백짓장처럼 희었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다리도 가늘어 불룩한 배를 지탱하기도 힘들어 보였다.

"걱정하지 말아요. 꾸날라를 낳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요. 옆에서 지켜줄 테니 안심해도 좋아요."

"당신의 아기 꾸날라를 위해서 그래 주세요."

아쇼까는 그녀를 껴안았다. 산달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녀의 체중은 가벼웠다. 아쇼까는 그녀를 침실 침대 위로 눕혔다. 그런 뒤 궁녀를 불러 말했다.

"갈수록 몸이 야위어 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무엇을 먹었느냐?"

"요즘에는 아무 것도 드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시면 토해버립니다."

"어부들이 강가강에서 잡아온 물고기 스프는 어찌 됐느냐?"

"음식은 드시지 못하지만 물고기 스프로 기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강가강에 나가 고기를 구해 올 터이니 그리 알라."

"예, 왕자님."

다음날. 아쇼까는 이른 아침에 빈두사라가 정사를 보는 궁으로 들어갔다. 빈두사라가 반색을 하며 아쇼까를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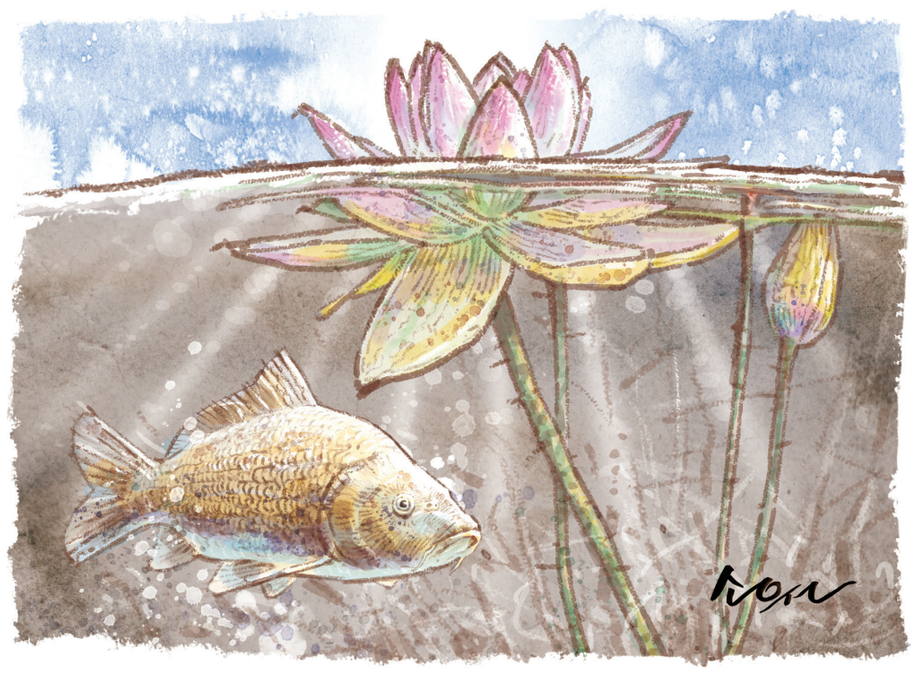
"수시마 형을 도와야지?"

"돕는 것은 어렵지 않사옵니다. 다만."

"다만 무슨 일이 있느냐?"

"빠드마바띠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사옵니다. 산달이 가까워지고 있사옵니다."

"정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아기 이름까지 지어놓았사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꾸날라이옵니다."

"꾸날라, 나는 어쩐지 슬픈 느낌이 드는구나."

"빠드마바띠가 몸이 허약하여 아기를 잘 낳을지 걱정되옵니다."

"좋다. 정사를 돌보는 데는 공사가 분명해야 하느니라. 그러니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 있다가 탁실라로 떠나거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아쇼까는 친위대장을 찾아가 빈두사라에게 받은 지시를 전했다. 그러자 그가 감탄했다.

"대왕님의 지혜로운 판단에 놀랄 뿐입니다."

"저는 꾸날라의 탄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쁘지만 병약한 아내를 돌볼 수 있어 더 기쁩니다."

"그래서 대왕님의 지혜로운 판단에 놀라는 것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십시오."

"아내는 물고기 스프만 겨우 먹고 있습니다. 강가강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어부출신 군사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위대장은 흔쾌하게 말했다.

"소장은 빠드마바띠님이 이곳에 오실 때 호위를 잘한 공으로 특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부탁인들 듣지 않겠습니까?"

아쇼까는 강가강으로 나가 어부출신 군사들이 탄 배를 탔다. 그물을 던지는 군사들의 솜씨는 능숙했다.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물에는 물고기들이 가득했다. 비늘을 번쩍거리며 팔딱거리는 물고기들을 보기만 해도 빠드마바띠가 곧 기운을 낼 것만 같았다.

아쇼까는 별궁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빈두사라의 명을 전했다. 밤새 불안해하던 빠드마바띠는 안심했다. 핼쑥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미소를 짓자 그의 눈이 더욱 크게 보였다. 비록 꾸날라를 잉태하여 더욱 야위었지만 언제나 눈만큼은 호수처럼 크고 아름다웠다. 긴 속눈썹은 호수에 어린 풀 같았다. 아쇼까가 빠드마바띠와 결혼을 결심한 것도 그녀의 큰 눈에 반해서였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소. 대왕께서 당신이 꾸날라를 낳을 때까지 이곳에 있는 것을 허락하시었소. 나는 꾸날라를 보고 탁실라로 떠날 것이오."

"행운의 여신 락슈미가 미소를 지었군요."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물고기 스프를 더 만들도록 궁녀들에게 지시하겠소. 방금 강가강에서 돌아왔소."

"당신이 고기를 잡았다는 말이군요."

"어부출신 군사를 데리고 나갔소."

빠드마바띠가 행복하게 웃었다. 너무 마른 탓에 웃는 모습이 찡그리는 것처럼 보여 아쇼까는 마음이 아팠다. 문득 아쇼까는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는 꾸날라를 갖지 말았어야지 하고 후회했다. 그러나 후회는 짧은 순간뿐이었다. 아기를 보고 싶은 아쇼까의 마음은 그 어떤 성취보다 간절했다. 비록 핏덩이지만 꾸날라를 보고 탁실라로 떠난다면 더 이상 원이 없을 것 같았다.

마침내 빠드마바띠가 꾸날라를 출산하는 날이었다. 산파가 오고 궁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쇼까도 별궁 밖에서 한 나절이나 서성거렸다. 빈두사라의 명을 받아 탁실라로 떠날 군사들의 구령소리가 별궁까지 들려왔다. 궁녀가 아쇼까에게 달려와 말했다.

"왕자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째서 늦어지는 것이냐?"

"진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자꾸 혼절하시기 때문입니다."

"허약한 몸으로 아기를 낳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러나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별궁 밖까지 들렸다. 아쇼까는 별궁으로 뛰어 들어갔다. 빠드마바띠는 혼절한 듯 축 처져 있었다. 산파가 크게 우는 꾸날라를 아쇼까에게 보여주었다. 꾸날라의 큰 눈이 아쇼까를 사로잡았다. 빠드마바띠를 꼭 빼닮은 눈이었다. 꾸날라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왕자님, 안아보십시오."

"모두들 수고했소."

아쇼까는 자신을 바라보는 꾸날라의 눈을 본 순간 콧잔등이 찡했다. 자신의 아기를 자신이 안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 그제야 빠드마바띠가 꼬무락거리며 깨어나 아쇼까를 쳐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쇼까가 꾸날라를 궁녀에게 건네주고 말했다.

"고생했소. 꾸날라는 당신을 닮았소."

"당신을 닮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당신은 뛰어난 분이니까."

"나는 이제 탁실라로 떠나야 하오. 그러나 곧 돌아올 것이니 기다려요."

"기다릴게요. 꾸날라가 당신을 찾을 거예요."

"당신, 건강 잘 챙기시오. 다시 만나요."

빠드마바띠가 또 눈물을 흘렸다. 아쇼까는 군사들의 구령소리를 들으며 별궁을 나왔다. 다르마가 손자인 꾸날라를 보러 왔다. 다르마가 말했다.

"손자를 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너를 떠나보내는 것은 슬프구나."

"어머니, 대왕님의 명이니 떠나야 합니다."

빈두사라의 명을 어기면 왕자라고 해도 가차없었다. 아쇼까는 자신이 길들였던 말에 올라탔다. 기수가 앞에서 천천히 달렸다. 마우리아왕국의 깃발이 펄럭였다. 아쇼까는 기마군사에게 크게 소리쳤다.

"출발하라!"

빠딸리뿌뜨라 성을 빠져나가는 기마군사의 말들이 흙먼지를 일으켰다. 탁실라까지 최대한 빠르게 달리기 위해 기마군사를 편성했던 것이다. 아쇼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망갈라로이 형제를 처단하고 돌아올 생각을 했다. 꾸날라가 보고 싶고 빠드마바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빠드마바띠는 산후병을 앓다가 아쇼까가 인더스강을 건너기 전에 죽었다. 아쇼까가 빠딸리뿌뜨라를 떠난 지 20여 일 만이었다. 다르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계속〉